

“류현진 등 선발진 탄탄 토론토 AL 최다승 가능”

美 매체 “100승 이상 기대 어려운일 아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5)의 소속 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2022시즌 아메리칸리그(AL)에서 최다승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매체 더 스포어는 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 분석 칼럼에서 AL 15개 팀의 새 시즌을 전망하며 “토론토는 AL 최다승 팀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류현진

토론토는 91승71패(승률 0.562)의 호성적으로 2021시즌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지구의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이상 92승70패)에 1경기차로 밀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했다. 더 스포어는 토론토의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PS에 나서지 못한 팀들 중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시즌 초반 불펜 난조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개의 홈구장을 사용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토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캐나다 정부의 국경봉쇄령에 따라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TD볼파크와 마이네리구 구장인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필드를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했고, 7월 31일야로저스센터로 복귀했다.

이 매체는 2022시즌 토론토의 희망요소로 선발진을 꼽으며 “마커스 시미언(텍사스 레인저스)의 공백이 고민이지만, 개막 이전 해결할 것”이라며 “케빈 가우스먼, 호세 베리오스, 류현진, 알렉 마노아로 이뤄진 선발로테이션은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이 팀(토론토)에 100승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는 선발진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했다. 프리 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2021시즌 AL 사이영상 수상자 로비 레이(시애틀 매리너스)와 스티븐 마츠(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동반 이탈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가우스먼을 영입해 빈자리를 메웠다. 지난달 CBS스포츠도 토론토의 오프시즌 움직임에 평가한 기사에서 가우스먼의 영입을 짚으며 A 등급을 매긴 바 있다. 류현진도 새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4.37(14승10패)을 기록한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영구결번의 ‘낭만과 영광’? 글세요...

“구단 상징 선수들 갈 줄 몰랐다”
“영광의 값, 과연 얼마여야 하나”
팬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충격
“20억은 영구결번 값으로 생각”
LG 레전드 박용택 새삼 떠올라



롯데 타선을 이끌어온 손아섭(왼쪽), NC의 창단과 함께 갑판타자로 군림해온 나성범은 올 겨울 FA 시장에서 충격적인 이적 소식을 전했다.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 수 없게 된 이들을 바라보며 팬들은 물론 동료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사진제공 | 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

영구결번 기념식은 시간이 문제일 뿐, 자격은 충분히 여겨졌다. 지금의 퍼포먼스 그대로 유니폼을 벗으면 구단의 ‘상징’이 될 수 있던 스타 3명이 원 소속팀을 떠났다. 선수들 스스로도 궁금해 하는 ‘프랜차이즈’의 가치. 한국야구는 그 이야기와 작별을 고하고 있다.

2022시즌을 앞둔 스토브리지는 ‘역대급’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프리 에이전트(FA)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척도는 금액이다. 정훈을 제외한 FA 모두가 소속팀을 찾은 가운데, 올 겨울 계약 총액은 971억 원이다. 2016년(766억) 2000만 원을 이미 뛰어넘은지 오래. 정훈의 계약 규모에 따라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단순히 금액만 역대급이 아니다. 팀을 바꾼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그 중

에서도 ‘영구결번 0순위’들의 이적이 눈에 띈다. 주인공은 박병호(36·KT 위즈), 손아섭(34·NC 다이노스), 나성범(33·KIA 타이거즈)이다. 이들은 각각의 원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NC의 영구결번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스타 이상의 존재들이었다.

박병호는 2011시즌 중반 트레이드로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다. LG 트윈스에서 데뷔했지만 만개하지 못하고, 이적을 계기로 KBO리그 최고의 타자가 됐다. 안타(1194개·89.5%), 홈런(302개·92.4%), 타점(956개·91.2%) 등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타자였다. 하지만 키움과 구제적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KT 유니폼을 입게 됐다.

손아섭도 마찬가지.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그는 15년 통산 1696경기에서 2077안타를 때려냈다. 통산 9위이자 현역 1위. 이 부문 KBO리그 최다기록 보유자인 박용택(2504개)을 넘을 유일한 후보로 꼽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대미문의 3000안타 고지도 기대할 만했으나, 적어도 롯데 유니폼을 입고 대기록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나성범의 상징성은 더욱 크다. 2013년부터 1군에 합류한 NC의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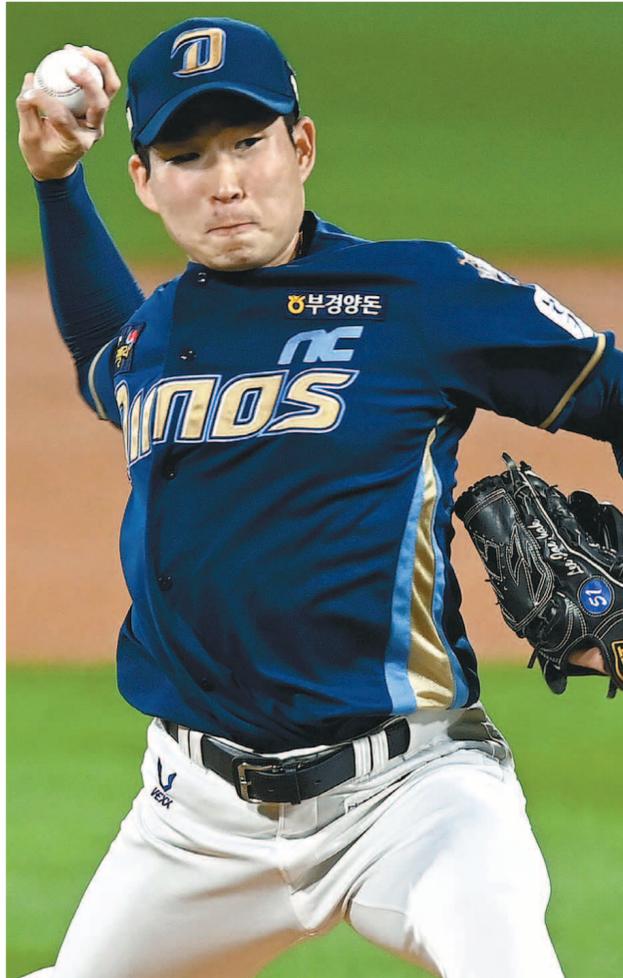
이자 자부심이었다. NC에서 은퇴 후 그의 등번호 ‘47번’이 영구결번이 됐다. 새 역사가 쓰일 수 있었다. NC라는 팀이 언제까지 존재하던 구단 역사상 47번을 달았던 유일한 선수가 될 뻔했다. 스스로도 이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국 KIA행을 결정했다.

놀라움의 크기는 팬들과 동료 선수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스포츠동아가 취재한 결과 “이 선수가 갈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막걸리를 요구한 베네딕트 A선수는 “구단의 상징으로 남는 영광의 값어치를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선수들 스스로도 ‘원 클럽 맨’의 가치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20억 원은 영구결번 값으로 생각한다.” LG 레전드 박용택의 말이다. 2차 FA 선인 당시 지방팀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았지만 페이컷을 결심하며 원 소속팀 LG에 남았다. 이 선택에 대한 만족과 후회 모두 박용택의 몫. 하지만 팬들은 이를 통해 ‘낭만’을 느꼈다. 그 낭만과 KBO리그는 지금 작별을 고하는 중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NC, 나성범 떠났어도 이재학 있다... “새해 당찬 인터뷰 자신”

“사경 헤매다 완봉승으로 숨 쉬어”
긴 부진 부담감 토로했던 지난해
“새 시즌 웃는 모습 더 보여주겠다”
팀 유일한 프랜차이즈 스타 각오



상징이 팀을 떠났다. 내부 프리 에이전트(FA)의 이탈로 생긴 전력 공백은 굵직한 외부 FA 2명의 영입으로 상쇄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애정을 불일 프랜차이즈 스타와 결별은 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도 희망 하나. NC 다이노스에는 이재학(32)이 남아있다.

이재학은 2021년 17경기에서 83이닝을 소화하며 6승6패, 평균자책점(ERA) 5.20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10승 고지를 넘기며 NC 마운드의 주축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것은 사실. 하지만 후반기 12경기에선 5승4패, ERA 4.38로 제몫을 다했다. 수년간 이어졌던 기나긴 부진의 터널에서 탈출했다는 자체로 수확이었다.

최근 창원NC파크에서 만난 이재학도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2021시즌 초까지만 해도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게 안 됐다. 힘들었지만 중반부터 조금씩 좋은 피칭이 나왔다. 구위가 눈에 보이도록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돌아봤다. 10월 1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선 9이닝 1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따내기도 했다. 이재학은 “커리어 최고의 피칭이었다. 여러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한창 좋았을 때도 스스로에게 엄격

했던 투수다. 앞선 시즌들의 부진에서 막 벗어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매길 리 없었다. 실제로 이재학은 인터뷰 내내 “한참 쓰러져있다가 이제 막 일어서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단계”, “사경을 헤매다 완봉승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쉽지 않은 말을 자신이 먼저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가 가졌던 그간의 부담, 그리고 이를 극복한 자신감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야구가 잘 안 풀릴 때,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재학은 “야구선수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수훈선수 인터뷰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과 장인장모의 존재가 언급되는 이유다. 어깨가 무겁다. 가장의 책임감이 유일하게 남은 생채기 없는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무게가 더해졌다. 이재학에게 2022시즌을 준비하는 각오가 남다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2022시즌에는 어떻게 해서든, 기죽은 인터뷰 대신 당찬 말만 하고 싶다. 성적이 좋아지는 게 최우선 아니겠나. 개인 성적이 오르면 팀 성적도 자연히 따라온다. 앞으로 웃는 모습, 자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NC 이재학은 부침이 심했던 2021시즌을 마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개인 성적이 오르면 팀 성적도 자연히 따라온다”는 믿음으로 새 시즌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키움, 임은주 전 부사장 해고 부당하지 않다”

“당시 지위 근로자에 해당 안돼”
중앙노동위 상대 2건 모두 승소

법원이 임은주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56)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키움 구단이 ‘임 전 부

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모두 원고(키움 구단) 승소로 판결했다.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계약 종

료 통보를 받았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키움 구단은 임 전 부사장에 대해 당시 계약 연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임 전 부사장은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키움 구단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키움 구단 내에서 임 전 부사장

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임 전 부사장의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의 ‘육중경영’ 논란에 대한 키움 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취임 직후 대표이사나 임원들과 나는 대화를 녹음한 점 등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동행복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2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996 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2년 01월 01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6 11 15 24 32 39	28
1등 총 당첨금	2,618,413,343,878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8	1,491,185,771 원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86	52,018,109 원
3등 5개 숫자 일치	3,313	1,350,305 원
4등 4개 숫자 일치	155,856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2,546,181	5,000 원

*상기 당첨금은 1억원당 당첨금에 기초합니다. 내역 금액은 원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인턴택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만원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소안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신 복권 구매는 중독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은 18세~99세~95세 www.dhlottery.co.kr